

연중 제29주일

기도서 460면 (B해)

제1독서 : 이사 53, 10-11

제2독서 : 히브 4, 14-16

복음 : 마르 10, 35-45

숲정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려 온 것이다.”
(마르 10, 44-45)

강론

“고난의 세례”

김동준 신부 / 사목국장

예수를 열렬히 추종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부정과 매도와 떠남의 역사를 만들었던 이유가 오늘 복음에서 잘 나타난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하고(마태 20, 20) 예수께 나와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던 좋은 자리 하나씩을 간곡히 부탁한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나?” 예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이며 증표이지만 또한 걸림돌도 된다. 그래서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십자가는 영광과 오욕의 척도이다.

사랑의 언약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갱신과 쇄신을 통해서 죽음으로 완성된다. 세례는 하느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이다. 세례는 분명, 일회적 사건이지만 연속적인 것이며 죽음으로 완결된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루가 12, 50)고 죽음을 앞두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

쉬운 것을 택하고 어려운 것을 멀리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십자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일 수 있다. 문제는 저항과 거부로만 회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없는 법이다. 빛이 강할 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진다. 우리의 아픔이 여기에 있다. 차라리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없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보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말씀을 알아듣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내가 지고 나갈 수 없는 십자가는 주시지 않는다. 만사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 사람들의 유치한 처세처럼 “너희는 그러서는 안된다”(마르 10, 43)고 이르신다. 예수는 우리에게 모범을 주셨다. 오늘 제2독서에서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며 우리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의 은총도 받게 될 것임을”(히브리 4, 15-16) 사도 바오로는 분명히 하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와 닮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은 결단과 회심으로 예수를 추종하고 고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소리

삼청 교육장-나의 교육장 일수도 있다.

지난 제5공화국 당시 우리나라 군대에서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죽은 군인만도 6천3백93명이나 된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기가 내가 대전 군종신부 때만 해도 매달 50여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땅에 묻었으니, 서울의 국군묘지까지 생각한다면, 그 숫자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으리라. 지금도 “이놈아! 내 아들 내놓아라! 자식 낳아 잘 길러 공부시켜 보냈더니 사망 통지가 웬 말이나?”고 울부짖던 유가족들의 처참한 절규가 들리는 듯하다. 군대! 군대는 어떤 곳이기에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가는가! 이는 한 마디로 군이란 특수 분위기 때문이다. 소위 군기(軍氣)가 서 있는 부대 분위기를 만들기에 갖은 방법을 다 쓰는데 그 방법이란 대체로 공포와 불안울 조성하므로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기가 잘 서 있는 군대는 그 만큼 훈련과 기합이 극성을 부린다. 그 자체가 윤리나 도덕과는 관계없이 오직 명령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군인다운 군인, 능력있는 군인으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개념과 분위기로 민간인들을 교육시켰던 곳이 바로 ‘삼청교육대’이었으리라고 얼마든지 추측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방법중 가장 무서운 방법이 ‘유격 교육’인데, 삼청교육은 바로 이 방법, 아니 그 이상의 혹독한 방법으로 교육시켰다하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하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진정한 인간 지옥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지독하였으면 그저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겠는가? 교육중에 수십 명이 죽었다는 보도의 진위(眞僞)는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다.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국(政局)을 기필코 성취해야 한다. 만에 하나 또 다시 군사 문화에 찌든 자들이 정국을 주도하도록 한다면, ‘삼청교육’- 그 곳은 곧 나의 교육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숲정이 산책



전기누전은 아니었다!



한국 성체(聖體) 대회

주제 '나눔으로 하나되어'



일시 : 1988년 10월 16일(주일) 오전 9시~오후12시 30분 (미사 : 10시~12시)

장소 : 대전 공실운동장 주경기장

한국 성체대회는 내년 10월에 열릴 세계 성체대회의 예비대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화해와 평화가 절실한 이 땅에서, 세계 성체대회의 취지와 정신을 지금부터 생활로 실천하여, 온 겨레가 한 마음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하는 대회이다. 아울러 세계 성체대회의 준비 상황을 신앙적·실천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점검하고 그 방향을 확인해 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 성체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한국 성체대회를 기해, 성찬의 뜻을 실천하는 생활운동인 '한 마음 한 몸'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성체는 그리스도 자신의 살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 내어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음

식으로 내 놓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때 이 성체를 받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고 그분이 주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서로 '밥'이 되어 주는 삶, 먹는 게 아니라 먹히는 '삶', 남들에게 내어 주기위해 '부서지고 쪼개지고 나뉘지는 빵'과 그 사랑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성체성년」이 한국 성체대회가 개최되는 10월16일 선포와 함께 개막된다. 한국 성체대회중 발표되는 89년도 주교단 공동사목교서를 통해 선포되는 「성체성년」은 이 대회를 기점으로 내년 세계성체대회 폐막후인 10월 16일까지 1년간 지속된다.



성서와 함께

23. 성서시대의 역사(E) : 판관시대

판관시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추대되는 1020 BC 이전 200년간을 가리킨다. 판관들은 왕이 아닌 신분의 지도자로 평화시엔 백성의 송사를 가려 재판을 했고 전시에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투에 임했다. 판관기 2, 6-3, 6이 전하는 바로는 이 시기에 일정한 현상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되풀이 되었다.

1. 이스라엘이 자기네 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
2. 그러자 야훼께서 이방민족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억압하셨다.
3.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신에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고, 그 응답으로 야훼께서 판관을 세우시어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다.
4. 판관이 죽자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다시 떨어졌다. 이 시기의 판관들은 12명이었고 그 공적에 따라 대판관 6명과 소판관 6명으로 나눌 수 있다. 오드니엘(판관3, 7-11)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쳐 이겼고, 에훗(3, 12-30)은, 암몬과 아말렉인들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예리고를 점령했던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하였다. 드보라(4, 5)는 바락 장군의 도움을 힘입어 가나안 왕 야빈의 지휘관 시므라를 제거했고 기데온은 이스라엘 북부에 자리잡은 부족들의 일부를 이끌고 미디안을 쳤다. 입다(10, 6-12, 7)는

암몬족을 정복했지만, 하느님과과의 경솔한 서약으로 인해 자기의 딸을 희생시켜야 했다. 대판관들 중 가장 선이 굵었던 판관은 역시 단 지파 출신의 삼손(13-16)이었다. 그는 블레셋(필리스테) 사람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스스로 장렬한 최후를 감수했다. 이상 여섯이 대판관들이고, 그외 소판관들로서는 삼갈, 돌라, 야이르, 입산, 엘론 압돈이 있다.

판관기 저자는 야훼만을 홀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였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기데온(8, 22 이하)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자 야심을 품고 세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경쟁자들을 모두 살해하였다(9, 42-49). 그러자 하느님께서서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아비멜렉의 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한 여인을 시켜 멧돌쪼를 내려뜨려 그의 두개골을 부수도록 하셨다(9, 52-57).

판관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부족들은 외적의 침입에 한해서만 일시적인 지도자 밑에서 동맹을 맺어 힘과 지혜를 모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시 분열되었다. 이런 미흡한 제도로써 강력한 왕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뤄 나갔던 주변 민족들에 대처해 나가기란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왕정제도의 도입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신 **다 래 호 프** 개
중 **다 래 호 프** 열

맥주의 참맛을 소개하는
<생맥주 · 경양식 · 각종음료수>
이 중희 (시몬) · 홍 숙자 (짬뽕)
신혼예식장 지하(구 다래다방)
☎ 84-5689, 84-9165

산테리아 · 스텐드 · 조명기구
전기재료 · 각종전기공사 · 누전공사

대광조명전기

대표 김 남주 (레이지오)
이리 중앙시장사거리 신화약국 옆
☎ (0653) 52-0569

보신탕 · 메기탕 · 추어탕 · 백숙 · 통개
토끼탕 · 오모거리 및 주류일점

자동차 대기

대추나무집
진창길 (영춘)
원주군 구이면 성덕교 옆
☎ 82-6019

교 구 소 식

5인 시복시성을 위한 금요미사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치명자산 루갈다묘역 (고백성사 있음)

1. 지구별 사목협의회: 24일-29일
 안건 1)-'89년 교구 사목지침 시안 및 예산(안) 심의
 2-신설본당 지원에 따른 검토
2. 혼인강좌: 30일(월)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참가비-1인당 5,000원
3. 서신동 사목교서 연수: 19일(수) 후8시
4. 가톨릭 실험인 연수회: 27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이사장, 실무책임자
5. 각 본당 사목회장단 및 교구 단위 단체장 추계피정: 22일(토) 오후3시-23일(일) 오후3시까지 장소-천호 피정의 집 피정지도-예수 고난회 김승중신부,대상-각본당 사목회장, 부회장, 교구 단위 단체장, 평협 임원 참가비-10,000원 교통편-22일(토)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에서 버스출발
6. 성소자 모임: 23일(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7. 중·고생 젠(Gen)성가 경연대회 예비심사: 30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8. 김제지역 M, B, W: 28일(금)-30일(일) 장소-수류천주교회 교육관
9. 어린이양의 모후 소년꾸리아 '미리내' 성지순례: 30일(일) 오전9시 전동성당 출발
10. 10월중 교구 마리아의 사제운동 다락방모임: 30일(일) 오후2시-5시 장소-수류천주교회 참석대상-수도자 및 평신도 강사-문선구 신부, 올리바 수녀
11. 자연가족계획 교육: 18일(화) 오전10시 가톨릭센터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12. 하나회(장애자) 일일차집: 23일 장소-구성도병원 옥상

- ※ 축! 영명 성 십자가의 바오로(19일): 김준호신부님 축하합니다.
- ※ 성빈센트 드 불자비의 수녀회 성소자 모임: 주제-기도와 생활 대상-고졸이상 28세 미만의 미혼여성 일시-23일 오후2시 장소-수녀원 본원(수원시 장안구 지동 93-3 (0331) 6-4961, 7-0142)

잠깐!

전동 성당 화재를 보고.....

"신부님 큰 일 났어요. 전동 성당에 불이 나서 타고 있어요!" 파랗게 질린 채 어쩔줄 모르고 외치는 수녀님의 말에 "어? 무슨 소리야! 그 성당이 어떤 성당인데?" 하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 전동 성당!

이곳은 단지 전동 신자들의 본당,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어쩌면 전주 교구 10만 신자들의 마음의 본당이다. 72년의 긴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성당다운 성당하면 으레히 그 성당이 머리에 떠오르리 만큼 우리에게 마음 깊숙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성당이 불에 타다니! 진정 아니 될 일이라, 허겁 지겁 달려가 보니 아직 그 아름다운 자태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일단 마음은 놓았다. 저 아름다운 성전이 폭삭 주저 앉았을 경우를 상상하며 그래도 이만하기 천만 다행이란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놀람은 현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교우들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되리라! 얼마나 놀랐겠는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성당으로 보수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또한 오래된 성당들이 유난히도 많은 우리 교구 성당의 안전을 점검해보자.

요심이 (793) 김병오



직원모집공고

1. 모집부서: 안내실 여직원 1명
 2. 자 격: 고졸이상, 영세한지 3년이상
 3.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접수마감: 1988. 10. 20
- 전주가톨릭센터 ☎ 85-0041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전문의 마기환
 한 남희(비리사대)
 오거리 국민은행 중앙지점 앞 2층
 ☎ 85-2203

중앙회장품백화점

(종합선물의 집)
 20~40% 할인
 * 결혼서트 특별우대판매
 임 영자 (미달레니)
 중앙성당 정문옆
 ☎ 4-0841

출산준비물, 유아복, 유아용품 모 아 방

효자체인점
 황 상문 (오 씨)
 김 계선 (최아침디)
 효자동 서부시정영, 효자성당앞
 ☎ 82-2049

효지속생전문학원

유치부·국공부
 중등부 수학전문
 정 학원 (미디어노)
 이 경애 (로 마 나)
 광진 목화APT 정문앞
 ☎ 83-4827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황 수경 (크리스티나)
 산부인과전문의 이 승렬 (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현주소 관할본당이 아닌 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신자 분들은 현주소지 관할본당으로 이전되었습니다.

* 노송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반미사: 18일 오후3시-남노5반 저녁7시30분 중노1가11반 19일 오전11시 중노2가6반 오후3시 중노1가 1반 20일 오전11시 중노2가 8반 오후3시 중노1가 3반 저녁7시30분 중노1가2반 21일 오전 11시 중노2가9반 저녁7시30분 중노1가4반
 - 성가정회: 17일 저녁7시30분
 - 형제회 월례회: 21일 오후2시
 - 꾸리아 월례회: 23일 오후2시
 - 축 결혼: 23일 12시 신랑 김병연 신부 김동희(아네스)
 - 저녁미사 시간변경 평일과 주일 7시30분으로
 - 꾸르실료 봉사자 강습수로 정진우형제 흥현숙자매 축하합니다.
 - 하나회(장애자) 일일차트: 10월23일 장소-구성모병원 옥상
- 지난주봉헌금: 852,670원 교무금: 199,500원

* 전동

사제관 84-3222·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진희
유치원 84-8347·레지아 83-5085 사목회장 안득수

※ 성당 화재로 모든 미사는 예전과 똑같이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 레지아: 오늘 오후 2시 ※ 전국성체대회: 오전 7시 출발
- 주일학교 가을소풍: 오늘 오전 출발 장소-화산나바위성당
- 가정방문: 18일(화) 21일(금)
- 성모회: 19일(수) 오전11시, 5. 수요성서강좌: 19일(수) 저녁미사후
- 성서공부: 20일(목) 오전10시
- 성령기도회: 21(금) 저녁미사후
- 청년회 1일 도보성지순례: 23일(여산에서 천호까지)
- 성마리아 꾸리아: 23일(일) 오후3시
- 감사합니다. 성당 화재 보수 공사비로 헌금하신 분: 손민용 50만
김영귀 50만원

지난주 봉헌금: 987,730원 2차헌금: 452,320원
 나눔의 헌금: 59,760원 교무금: 570,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후
 - 가라말당의 성모님 영화상영: 21일 저녁미사후
 - 부녀회: 20일 오전10시
 - 주일학교 소풍: 23일 오전9시 출발 덕진 왕릉
 - 다음주는 전교주일: 2차 헌금 있음.
 - 삼 회: 23일 오후2시
- 금주성당청소: 월-결손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신일균 ②윤귀자
봉헌-신일균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윤귀자 독서①오장수 ②정장선
봉헌-오장수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482,740원 교무금: 850,000원

* 중화산동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득

- 청년회 단합대회: 오늘 9:30 미사후
 - 자모회의: 21일(금) 어머니 미사후
 - 두현리 공소미사: 21일(금) 오후 7:30
 - 가정방문: 18일(화) 원진 사거리 20일(금) 태백 남양부지개
 - 2차헌금: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 성모회원 야외 단합대회: 10월25일(화)
교무금은 월별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 성가연습: 주일 9:30 마시전 15분전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축 혼배성사: 신랑 최종록 신부 강경자 장소-효자성당 일시-88년 10
23일 12:30분
- 금주전례: 해설-양영실 독서①문병식 ②구문순
차주전례: 해설-양영실 독서①박종원 ②김난희
 지난주봉헌금: 271,420원 교무금: 318,000원
 2차헌금: 169,460원
 신축기금: 김정화(서울 양재) 100,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 전교주일: 다음주 2차 헌금 있음.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1인1전교에 힘씁시다.
 - 청년회: 공식미사후
 - 구역미사: 20-수월, 27일-신홍
4.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지난주봉헌금: 160,780원 교무금: 110,5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훈

- 신축헌금 신입자: 임순달 20만원, 장마리아 5만원, 유문자 10만원
 - 가정방문: 18일(화)-전14, 후15, 16 19일(수)-전17, 18
 - 구역형제회: 20일(목)-전11시 12, 20(17, 18)미사 후3시-21(24, 25) 2
(미사) 후8시-14, 15, 16(미사) 21일(금)-석구 평촌 광곡(미사)
 - 청년회: 22일(토) 후8시 (청년연합회에서 남자회원을 모집합니다.)
 -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3시
 - 성모회: 공식미사후 7. 예비신자모집: 11월 중순부터 시작
 - 유아세례: 다음주일 오후3시에 있습니다.
 - 혼인공시: 신랑-고복근(요셉) 신부-허영미(10월23일)
 -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일, 화, 수, 목, 토)-오후7시로
 - 금주전례: 해설-박연희 독서①장상근 ②김강미
봉헌-김필수 부부
차주전례: 해설-문치구 독서①박경환 ②한소자
봉헌-심병설 부부
- 지난주봉헌금: 248,900원 교무금: 125,000원
 자신헌금: 77,150원
 신축헌금 신입총액: 132,486,776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이순성
사무실 84-2276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 ※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 진상 규명 대회
일시-10월17일 저녁7시30분 장소-전동성당
금주강론: 혼인성사③
- 회 의: 성모회-오늘, 제대회-19일(수) 10시
 - 알 림: 성체강복 및 조배-20일(목) 저녁7시30분 10월23일(전교주일)-2
차헌금 있음.
 - 방 문
15·16반-10월18일-김정수(미카엘라) 84-2193
17·18반-10월19일-박봉이(제마) 84-5558
19·20반-10월21일-오효진(요셉파나) 6-4662
 - 예 고: 유아세례-10월31일(사무실에 신청바람)
- 지난주봉헌금: 382,630원 교무금: 304,000원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훈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환
수녀원 84-4804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입니다.
- 성지순례: (천호-여산-화산) 친목행사(왕궁담) 출발 09:00시 집결-
화아파트 사거리(효자테니스 앞) 08:30분까지 집결 참가비3,000원 미-
시간, 점심준비, 각구역별, 단체별 장기자랑
 - 부활예비자반 교리시간 안내: (일) 10:30(4호실) (수) 오후7:30(교육관
예비자를 적극 인도합니다. 3. 본당성가대 성가발표회: 10월30일(일)
후8시 장소-효자성당 4. 가정방문: 계시관 참조
 - 모임안내: ①로사리오 모후 꼬미씨옴-금주토요일 오후2시30분(교육관)
②모니카회-19일 오전11시(교육관) 테레사회-19일 오전11시(4호실)
 - 인사회입원: 회장-김은자씨 부회장-고창석씨 총무-박예철씨
 - 전례담당: 계시관 참조 8. 감사: 본당에 꽃기증 김길용씨
 - 초종교 교리교사 모집: 사무실에 9. 청소년담당: 금주-거성국민아파트
옴주-성당부근
- 지난주봉헌금: 869,390원(1082) 교무금: 620,000원 초종교생: 38,9
원(154) 주일헌액: 18,570원(250) 금요나눔의 헌금: 61,710원